분권·전환으로 종단 패러다임 바꾼다

총무원장 후보 주요 공약은?
기호 2번 정념 스님

- 교구자치 · 단임제로 참종권 확대
- AI 윤리선언 등 '문명 전환' 선도
- 全 생애 승려복지로 공동체 구현
- 문화유산 정책 '미래 자산화' 방점
- 출가 천명 프로젝트로 출가자 확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6월 19일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정념 스님이 이광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년 미국 우든피쉬재단이 참여한 출가학교에서 정념 스님이 외국인 학생에게 삭발을 해주고 있다.



2025년 4월 30일 열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관 개관식에서 정념 스님과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스님이 내놓은 종책 공약의 출발점은 '위기'다. 지난 20년 사이 연간 출가자는 1999년 532명에서 2024년 81명으로 급감했고, 청년·청소년 불자는 전체 불자의 4%로 축소됐다.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은 지역 사찰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재정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종단 신뢰도 역시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념 스님은 '분권'과 '전환'이 중심된 종책 공약을 종단 운영 6대 원칙과 3대 전략 개요를 통해 제시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교구로 이양하고, 총무원장 단임제와 선거인단 확대로 종단 정치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AI 대전환,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 불교문화유산의 디지털·세계화를 결합했다.

"중앙은 지원 · 보완"…교구자치 법제화

정념 스님이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교구자치'다. 그만큼 '교구자치'는 정념 스님의 종책 공약에서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이 가장 뚜렷하다.

정념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무원 자체가 너무 권력기관이 돼 전체를 통제하려 하거나 중앙이 지방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중앙종무기관은 종단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대정부·대사회·국제 역할과 교육 방향을 맡되, 지역 종무는 교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스님은 '지역 종무는 지역 대중이 우선 결정하고 중앙은 지원·보완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교구자치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구자치위원회와 교구종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교구가 자율적 사법(寺法)을 제정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게 정념 스님의 구상이다. 말사 주지 임명권은 교구본사로 넘기되 교구종회 심의와 대중공의 검증을 의무화해 교구 내부의 권력 독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분권도 병행한다. 중앙 예산 30%를 포교 기반에 배정하고 우량 교구 분담금 일부를 취약 교구의 특화사업과 스님 기본소득·노후 의료비에 투입하는 상생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나아가 2026년 하반기 교구분권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7년 상반기 교구법 제정과 주지 임명권 이관을 마친다는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단임으로 재선 폐단 끊겠다

정념 스님이 공약한 '단임제'와 '참종권 확대'는 종단 정치 개혁의 두 축이다. 총무원장의 재선 유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종도의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부터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단임제를 종헌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이 단임제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연임제의 폐단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임을 추진하는 총무원장이 교구본사나 여타 정치 세력을 우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단임제가 되면 총무원장이 재임하기 위해 교구본사나 여타 정치 세력을 특별히 관리하거나 정치 질서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적어진다"고 강조했다.

참종권에 대해서는 "대중의 참여 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곧 애종심을 발현시키는 일"이라며 선거인단 확대와 구성 다양화를 제안했다. 현행 소수 간선제가 금권선거와 매표, 일반 종도의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즉각적인 전면 직선제보다는 확대 간선제, 산중총회 참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도 전체의 참여 등 여러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안했다.

비구니 참종권도 이 같은 틀 안에서 다뤘다. 이에 대해 정념 스님은 인터뷰에서 "산중총회 대중이 그대로 다 참여하면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AI는 기술 아닌 '문명 전환'

AI 발달로 인한 대전환은 정념 스님이 출마를 결심한 배경이자 종단 미래종책의 중심이다. 정념 스님은 인터뷰에서 "AI시대의 쓰나미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니라 문명 전환이다. 사유 방식부터 판단의 틀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재조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며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사회를 양단화·극단화할 수 있는 만큼 화엄과 연기의 관계적 사유가 대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정념 스님의 AI 관련 종책 공약은 '종단 전환'에 방점을 두고 윤리·포교·행정·교육을 아우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자비와 정견에 기초한 '불교 AI 윤리선언' 제정이다. 이에 대해 정념 스님은 "선언의 핵심 원칙은 자비와 정견에 기반한 인간 존엄, 생명 존중, 기술의 윤리적 활용"이라며 "선언 제정은 교계·학계·과학기술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공사의 공론을 거쳐 종단 명의로 선포하겠다"고 전했다.

포교적 측면에서는 팔만대장경과 고승어록을 기반으로 한 AI 대화형 콘텐츠 개발하고, 다국어 명상 어플 무상 보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시대 마음 치유의 거점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를 교구본사별 명상 거점으로 확산하겠다는 것도 주요한 AI 종책 공약으로 꼽힌다.

종무행정에는 AI 네이티브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화쟁토론방'을 열어 1만3000여 스님과 재가불자가 종단 현안을 상시 논의할 것도 공약했다.

'화쟁토론방'에 대해 정념 스님은 "AI가 의제 정리와 쟁점 요약을 지원하고, 종단 현안을 상시 토론에 부쳐 부처님 당시 대중공사의 전통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것이 '화쟁토론방'의 골자"라며 "플랫폼에서 모인 공의는 총무원 각 부·실의 종책 수립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처리 결과를 다시 공개하는 환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가 문턱 낮추고 입적까지 책임

정념 스님의 승려복지와 출가 종책 공약은 하나의 생태계로 묶인다. 출가자 모집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의료·주거·노후의 불안을 함께 해결해야 출가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 정념 스님은 '출가 천명 프로젝트' 5개년 계획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연간 출가자를 200명대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스님은 "행자 교육과 강원 과정을 현대화해 출가 교육의 실효성과 매력을 높이고, 늦깎이·만학 출가의 연령·절차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단기출가학교는 전국 교구 단위로 일원화하고 종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AI 활용·명상지도·사찰세무는 승가교육 필수 교과로 편성한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승려복지 공약은 '출가에서 입적까지'를 원칙으로 의료비 전액 지원, 교구별 수행·노후 거점원과 요양시설 건립, 종단이 먼저 건강과 주거를 살피는 능동형 돌봄을 제시했다. 교구 상생기금을 기본소득과 노후 의료비에 투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불교문화, 미래 자산으로

불교문화와 불교문화유산 종책 공약은 '미래 자산화'에 방점을 뒀다. 문화유산을 디지털 데이터와 현대 콘텐츠로 전환해 국민과 세계가 향유하는 공공재로 회향하겠다는 게 정념 스님의 구상이다. 이는 정념 스님의 출마선언문에 담긴 "사찰의 담장을 넘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자비의 불교로 회향하겠다"는 약속과도 궤를 함께 한다. 종단의 유산을 내부에 가두지 않고 사회의 치유 자산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주요 공약으로 불교 문화예술 창작기금 신설과 영화·뮤지컬·웹툰 창작자 지원, 성보박물관 소장품과 팔만대장경의 3D 모델링·오픈소스 개방이 담겼다. K-불교 대표 불서 10권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한국사찰음식전승원을 건립해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북한 전통사찰 59개소의 역사 고증 자료 발간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념 스님의 종책 공약은 인드라망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단임제로 재선 중심 정치를 줄이고, 참종권 확대로 종도의 대표성을 높이며, 교구자치로 중앙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다. AI는 이를 연결하는 참여·행정 기반이 되고 승가복지와 출가정책은 종단의 인적 토대를 복원한다. 불교문화와 불교문화유산은 사회와 세계로 회향하는 통로가 된다. 교구와 사부대중이 서로를 받치며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종단'으로의 전환이 정념 스님이 그려내려 하는 '새로운 화엄' 이다.

기호 2 번 | 정념스님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

AI 시대 새로운 리더십으로

제 38대 총무원장 후보 정념, 사부대중께 약속합니다.

단임 실천
종헌의 명문화
임기 4년 전력투구

교구 자치
말사 주지 임명권 이관
교구 자치법 제정

승가 복지
출가에서 입적까지
찾아가는 적극 복지

정념스님 선거대책위원회

